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지혜서 7:7-11 제2독서 히브리서 4:12-13 복음 마르코 10:17-30

◎말씀 < 하느님의 시선 >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에서는 단연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돈 앞에는 머리를 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독서 지혜서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지혜를 왕후와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지혜7,8-9) 지혜서 저자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 바로 ‘지혜’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참 지혜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결정할 때의 절대 기준이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느님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는 것이고, 하느님을 잃으면 세상을 다 잃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복음(福音)을 받아들일까요? 아마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마르 10,17-30)을 보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한 부자의 만남을 전해줍니다. 이 부자는 야훼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계명’(십계명)을 어릴적부터 충실히 지키며 살았던 훌륭한 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이 정도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제 가서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마르 10,22참조) 그렇게 지키기 힘들다는 십계명도 잘 지켰던 그 부자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라는 한마디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반면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지긋지긋한 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자였던 세리 자캐오의 경우(루카 19.1-19)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산상설교 때 하신 말씀 중에는 재물에 관한 가르침(‘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마태 6,19-21), ‘하느님이나 재물이나’(마태 6,24))이 많았던 가 봅니다.

자기 것만 챙기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내어놓는 나눔을 실천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웃이 보이고 세상의 고통이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절대로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예수님의 시선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지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마태 5,3-12)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 12일(화)	연중 제28주간 화요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 1,142.00
			교무금	\$ 1,180.00
10월 13일(수)	연중 제28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장례예물	\$ 200.00
			미사예물	\$ 2,570.00
10월 14일(목)	연중 제28주간 목요일	저녁7시30분	성물방	\$ 80.00
			자선비	\$ 110.00
10월 15일(금)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저녁7시30분	특별지향	\$ 2,500.00
			성소후원	\$ 130.00
10월 16일(토)	연중 제28주간 토요일	저녁7시30분	합 계	\$ 7,912.00
10월 17일(일)	연중 제29주일	오전9시(학생) 오전11시(교중)	미사참례자	학생/아동: 14명 성인: 148명
교무금 봉헌자	염상보(8-12월)김형진(9-10월)김선식.윤영자.이대원.윤재경.남필레.김규대.안강순. 박용호.조영숙(10월)			

◎신앙생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21:5)

마리아 - 신앙과 사랑의 모범

옛날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 마리아라는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목수와 정혼한 사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26-38 참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공적인 전례나 사적인 기도 혹은 묵주기도 등을 통해서 특별히 공경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여 마리아를 하느님과 같이 흠송한다고 비판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마리아께 드리는 공경은 온전히 독특한 것이지만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만 드리는 흠송(adoratio)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경(veneratio)으로서 하느님께 드리는 흠송을 최대한 도와줍니다(교회헌장 66항).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예를 흠송지례(欽崇之禮),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드리는 예를 상경지례(上敬之禮), 그리고 성인들에게 드리는 존경과 사랑을 공경지례(恭敬之禮)라고 구분합니다.

마리아께 특별한 공경을 드리는 이유는 하느님의 인간 구원 계획에 있어서 마리아께서 하신 특별한 역할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시지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하느님의 계획을 전해 듣고는 그 앞에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자유로운 동의로써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마리아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낳음으로써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마리아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에 완전히 협조하여 자신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기엔 우리는 마리아를 거룩하신 어머니, 곧 성모님이라고 부르고 각별한 사랑으로 공경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 되신 성모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녀의 청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가련하게 매달리는 이를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청하여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십니다. 오늘도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녀인 우리를 위해 빌어주십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김정필 .라파엘 /윤태욱 .안나/원정은 .카타리나 백정심 .막달레나/기은희 .마리아/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추소연 .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김초지 .마리아/이규청 .체노비아 엄모니카 /배미성 .오틸리아 /박모란 .글라라고공자 .벨라데타/신용경 .그레고리오/이상일 .마리아 남필레 .마리아/김화진 .요안나/김영미 .마리아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여길선요안나 영혼	김근수요한가족	생	박종윤.요셉 빠른 쾌유	최중구안토니오
연	전기레베레나 영혼	조영진안드레아	생	김정필.라파엘 빠른 회복	영상보시몬
연	오영애바울라 영혼	오토마스자녀들	생	류재순마리안나, 심순녀 영육건강	류재순마리안나
연	이호순수산나 영혼	안나회	생	(첫똥)은혜 영육건강/감사미사	김임직빅토리아
연	서정선.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조유원.요셉 영육건강	조윤희밀지다
연	양봉남베드로 영혼	이환토마스	생	진토니 빠른 쾌유	이영숙데레사
연	서정선.엘리사벳 영혼	이나숙데레사	생	오종신토마스 영육건강	구준모요한
생	자녀들 영육건강	이상일마리아	생	장영란젼마 영육건강	조윤희밀지다

가작족지

◎ 바다에서 ◎

여름이 지나간 바다의 저 파도 소리
갈매기는 아직도 화려한 곡선만 그리는데
안일한 일상의 부끄러운 내 고백 잠 재우시고
오늘은 물살되어 사랑의 손으로 나 씻어 주시네

마중기 노렌조 시인.의사

◎공동체 소식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목시21:5)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1인 1신심단체, 1봉사단체 가입하기>

1.목주기도 성월(전교의달) 목주기도 안내

일시:미사30분전 (화/목/금/일)
기도담당:게시판 참조

2.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자:10일(일)성당에서 오후2시 출발
참여단체:청년회
공소미사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서북미 한인 꼬미시움 회합 개최

일자:17일(일)교중미사후.친교실
대상:서북미 6개 꾸리아 간부 및 우리 본당
각 뵈레시디움 간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교구 2차헌금 안내

일자:24일(일)모든미사
목적:World Mission Sunday

5.감사합니다.

장례예물 :\$200 (서정선.엘리사벳유족)
특별지향헌금 :\$2,500 (서정선.엘리사벳유족)
감사헌금 :\$1,000 (이호순.수산나유족)
달력광고(2022년):\$200 (123 AUTO BODY,이호영베드로)

6.감사합니다.

성당울타리(펜스)와 게이트 페인팅 봉사해주신
본당신부님과 이수동베드로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학생미사 (매주일 9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학생미사때 좌석을 구분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학생.학부모(독서대쪽)/일반성인(미사해설대쪽)

● 성당 내에서의 소규모 단체모임 허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본당 제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단체모임(10명 내외)에
한해서 본당 사용을 허락합니다.
본당 신부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에서 발행한 Check는 빠른 시일 안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 된 Check를 입금하지 않고 8개월이 지나면
찾을 수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Check는 본당 자선비로 봉헌
처리하려고 합니다.

● 코비드19 관련, 본당 방역 지침 (요약)

- ①성가책과 기도책은 모두 개인이 지참.사용
하시기 바라며, 미사후에는 개인소지품은
백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②악수/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은 삼가하시고,
코비드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③미사 참석하는 모든 신자들의 성가제창 및
기도문 봉독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합니다
- ④성당내 소규모 단체모임은 사전에 신부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⑤그 외 사항은 교구지침을 따릅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전례봉사	연중 제28주일(10월10일)	연중 제29주일(10월17일)	연중 제30주일(10월24일)	연중 제31주일(10월31일)
미사해설	정미정.루시아	김은영.폴리나	이순자.요안나	최금주.요안나
복사	송돈희.요셉	장현철엘리아	최진호.다니엘	최준우.루카
헌금위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목시 21:5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Print N Signs

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

성당제출용
CHECK 발행할 때
Payee to:
St.J.H.C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